

## 6.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

강사: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초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세등등하던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러자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 이전 자본주의 황금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황금기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이론도 다시 주목받았다. ‘포스트케인즈언’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신자유주의가 말썽을 피우면서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해진 시점에서 한 때 잘 나갔던 시절이 떠올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그 당시 처방을 다시금 끄집어내면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이 지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자 이론 틀에 갇혀 역사적 맥락을 놓치고 있다.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체질의 사람에게 동일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

### 크게 달라진 환경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과 북미지역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먼저 오랫동안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던 자유방임주의가 완전 후퇴했다. 1929년 대공황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자 했던 자유방임주의 교리를 일거에 허공으로 날려 버렸다. 대공황은 시장 기능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그 반작용으로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국가 개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모두 대공황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생존 능력을 과시하면서 동유럽 일원으로 판도를 확대시킨 소련 사회주의권은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끊었던 유일한 나라인 소련이 대공황으로부터 안전하였다는 사실은 국가의 시장 개입과 통제에 대한 믿음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 주었다. 대공황 시기 소련이 사회주의 공업화를 통해 극적인 약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에 보다 확실한 종지부를 찍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자유방임주의 관점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국가 주도 '계획'과 '개입', '통제'가 강력한 설득력을 얻었다.

팽창하는 소련의 존재는 과거에는 그 여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계급대타협을 강제하였다. 자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 동독마저 사회주의권에 편입된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척에 있는 그 무엇이었다. 선진 자본주의 역시 언제 사회주의 혁명이 집어삼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혁명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극적 타협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체제 안에 묶어두는 것뿐이었다. 그로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계급대타협은 자연스런 흐름을 탔다. 먼 훗날 소련 사회주의권 붕괴로 사회주의에 대한 냉소가 팽배한 상황에서 일부 논자들이 사회주의가 총량적 관점에서 인류 사회 진보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정치 지형 교체는 이러한 변화를 확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노동대중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뚜렷하게 좌파적 색채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서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계열 좌파 정당들이 대거 집권에 성공했다. 영국 노동대중 역시 전쟁 영웅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을 버리고 노동당 정부를 선택했다. 이로써 좌파 정당들이 강조해 온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 황금기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

1950년에서 1960년대 말까지 대략 2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 황금기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공산품 생산량은 4배로 늘었으며 공산품 세계 교역량은 10배로 확대되었다. 일찍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놀라운 팽창의 대부분은 선진 자본주의의 번영에 따른 것이었다. 전 세계 생산고의 4분의 3과 공산품 수출액 80%를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차지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과 일본의 성장률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서독의 경우 1950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동안 연평균 8.6% 성장했고 국민총생산은 10년 새 두 배로 성장했다.

도대체 황금기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둘러싼 학자들 의견은 분분하다. 그럼에도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성장 동력이 왕성하게 살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신산업 출현, 생산성 증가, 교역 확대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본주의 황금기는 바로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했던 시기였다. 2차 세계대전 군사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은 종전과 함께 민간 산업으로 이전되었다. 그에 따라 전기

전자, 화학, 기계 등 분야에서 신산업이 연속적으로 창출되었다. 포드사에서 처음 확립된 테일러-포드 시스템은 종전과 함께 거의 모든 산업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달러가 기축 통화로 확립되고 GATT 체제 수립되면서 국제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학자들 사이에서 덜 주목받았지만 자본주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소로서 공급과 수요 간 균형 회복을 들 수 있다. 자본의 부단한 축적과 낮은 수준의 노동자 임금은 공급과 수요 사이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자본의 과잉 축적을 초래하면서 성장을 억제한다. 급기야 1929년처럼 파멸적인 대공황으로 폭발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잉 축적된 자본이 대거 파괴됨에 따라 불균형이 회복되었던 것이다. 덕분에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졌다.

## 케인즈주의의 기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는 이전 시기 모든 위기의 출발점인 대공황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가장 뚜렷한 해답을 준 인물이 바로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였다.

종전까지는 공급 중심 경제학이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공급이 시장을 창출한다는 이론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케인즈는 출발을 달리 했다. 케인즈는 유효 수요 부족이 문제의 발단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대공황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방법은 불황기에 국가가 공공지출을 늘림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필요한 자원은 적자 재정을 통해 조달하고 호황기에 흑자 재정을 통해 보충하면 되었다.

케인즈의 처방은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다. 선진 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 처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주기적으로 불황기가 다가 왔지만 그 폭은 최소화되었으며 이내 호황기로 전환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케인즈주의를 성장 전략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케인즈주의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대공황을 예방하기 위한 거시경제관리 정책이었다. 케인즈는 자신의 이론을 불황기 경제학이라고 불렀다. 불황기 극복 방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황기가 짧게 끝날 때 해당되는 것이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케인즈주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적자 재정을 장기간 이어갈 경우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선택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확실한 주류 집단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변두리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비판 세력이 아니었다. 이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였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답을 찾아 나섰고 그들이 도달한 곳은 복지국가였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목표는 아니었다. 그것은 다소 의도되지 않은 결과였다. 애초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도 사회주의였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었다. 일반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기존 국가 권력의 분쇄가 아닌 접수만을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부르주아 계급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던 관료집단에 의존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혁뿐이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적극적 계급대타협을 추진했다. 그 요체는 노동자 계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자본가 계급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에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급대타협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 복지국가였다. 20여 년간 지속된 자본주의 황금기는 이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다. 부단한 생산 확대는 완전고용을 가능하게 했다. 2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속적 노동생산성 상승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서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를 안겨다 주었다.

복지국가를 선도하면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었다. 무엇보다도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자본주의 경제 관리에서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사회민주당은 좌파 정당은 분배에만 치중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순진한 사고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격하게 성장 동력을 관리해 갔다. 첫째 협력적 노사 관계 확립을 통해 산업 평화를 확립했다. 파업 발생은 최소화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을 추진했다. 셋째 철저한 개방경제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가차 없이 퇴출시켰다. 모두가 한국에서는 보수 세력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의제들이었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본디 소련 공산주의와 함께 마르크스주의를 공통의 뿌리로 삼았던 사상 조류였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자연스럽게 역사적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직접 경험을 한 당사자들일 것이다.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한 나라들 중에 사회주의로 회귀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반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도한 복지국가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판정승을 거둔 것이다.

## 장기 불황의 내습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꼈다. 예컨대 국제연합(UN) 보고서는 “성장 추세가 1970년대 초중반에도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70년대 예상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사회민주주의자들 역시도 낙관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접어들어 유럽과 북미 자본주의 국가들이 일제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면서 환상은 처참하게 깨져 나갔다.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물가마저 꾸준

히 올랐다. 자본가는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아우성 쳤고, 노동자들은 물가가 오른다고 아우성쳤다. 전례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많은 논자들이 장기 불황 주범으로 급격한 유가 인상을 수반한 석유위기를 꼽았다. 석유위기가 악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다.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을 초래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석유위기가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석유위기가 없었어도 장기 불황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첫째 장기 불황은 석유위기 발생 전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똑 같이 석유위기를 겪었음에도 고성장을 이어갔다. 셋째 1980년대 초 석유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장기 불황은 지속되었다.

1970년대 유럽과 북미 자본주의 국가 장기 불황의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를 최대한 압축하면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이 심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주의 처방은 실물경제 내부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적시에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도록 했다. 하지만 그 부산물로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에 전혀 새로운 불균형을 야기했다.

황금기 동안 증가된 소득 일부가 자본소득을 기대하면서 금융자본으로 전환되어 갔다. 금융자본 규모는 실물경제 성장 속도보다 몇 배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접어들어 황금기를 뒷받침했던 성장 동력이 소진되기 시작했다. 신산업 출현이 멈추었고 노동생산성이 둔화되었으며 교역 확대도 정체되었다. 그 결과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금융자본과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금융자본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축적되자 이윤 창출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그에 따라 이윤 획득 기회를 얻지 못한 금융자본이 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이는 화폐운동을 축소시키면서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돈이 돌지 않으니 상품 판매도 둔화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1970년대 선진 자본주의를 엄습한 장기 불황의 구조적 요인이었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케인스주의 처방은 더 이상 먹이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자신들이 익숙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장기 불황으로 실업구제 비용이 증대하면서 재정을 압박했다.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추가 증세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불황을 더 심화시켰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었지만 유럽 좌파 세력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국가 또한 연신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 나름대로 탈출구를 제시한 것은 우파들이었다. 그들은 과잉 축적된 금융자본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불균형을 해소시키자는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영국과 미국 우파들이 앞장섰다. 훗날 비판적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흐름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19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가 장기 불황 늪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진보 경제학자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케인스주의 처방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맥없이 지켜봐야 했다. 진보 경제학자들은 장기 불황에 대해 끝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신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맞이했다. 그 이후 진보 경제학자들이 주된 역할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진보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나름대로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신자유주의들이 잘 못 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바람에 이러저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상황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다고 비판했다. 그들 머릿속에서는 1970년대 장기 불황 시기 역사는 서서히 지워져 갔다.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 모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케인스주의 처방을 재현하기 위한 시도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197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가 왜 무용지물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기울여지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매우 심각한 논리적 결함을 낳는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온 장하준 교수는 잘 나갔던 시절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비함으로써 올바른 해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왔다. 그러한 장하준 교수 저작에는 1970년대 자본주의 장기 불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만약 그 시기 내용을 집어넣으면 장 교수의 이론 체계는 엉망이 되어 버릴 것이다. 장 교수 주장과 달리 신자유주의로 전환하지 않았으면 자본주의는 그런대로 잘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장기 불황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숨이 끊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자들조차 그러한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어떻게 타협할지를 고민했었다. 그만큼 장기 불황에서의 탈출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로의 회귀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별도 기회에 살펴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자본주의 황금기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해법 또한 완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